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23~24일 본부 청사에서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조사설계 프로그램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드론 측량·설계 교육

**현장맞춤형 설계 실무 프로그램 사용
드론 기본 원리·적용 법령 등 설명**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3~24일 본부 청사에서 사업담당자 9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조사설계 프로그램 심화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직원들의 설계 실무 프로그램 사용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활용을 통한 업무 처리(측량·시설물 유지관리 등) 간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 맞춤형 교육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드론 측량의 원리 △항공법 및 드론 관련 법령 △드론 영상처리 실습 등 드론의 기본적인 원리와 적용 법령부터 드론 측량법까지 교육했다.

손영식 본부장은 "공사에서 진행 중인 생산기반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드론을 활용한 설계안전관리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업무의 효율성 외에도 설계 품질 향상과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undori@knnews.co.kr